

남의 허물 볼수록 분별심 깊어지니 그저 방하착하라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따사로운 겨울햇살이 한 낮의 화엄사 도량을 채우고 있다. 연기(緣起) 대사의 눈에는 백제 땅을 휘감고 있는 지리산이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신령스런 산으로 느껴졌다. 부처님의 원음무에 한 '화엄사상'을 펴기에는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지리산이 최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하여 연기 대사는 지금의 화엄사에 절터를 잡은 것이다.

각황전 옆으로 나있는 백팔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하나를 밟을 때마다 번뇌 한 가지를 버리면서 올라오라는 의미일 터이다. 계단의 끝에는 노승으로 둘러싸인 사사자(四獅子)3층사리석탑이 자리 잡고 있다. 연기 대사의 효심이 서려 있는 석탑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하다. 석탑의 스님상은 연기 대사의 어머니가, 석탑과 마주하고 있는 석등에는 한쪽 무릎을 꿇고 차를 공양하는 연기 대사가 조각되어 있다.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 대사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를 이어 아들 하나 점지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는 광주 약사암에서 백일기도를 했다.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가사 장삼을 수하신 스님 한 분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태몽이 되었고, 스님은 출생과 더불어 집안에서 '스님이 될 아이'로 특별하게 생각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대홍사 스님이었던 한문 선생님께서 <반야심경> <능엄경>등의 경전을 배웠다. 부처님 가르침에 절로 환희심이 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전을 공부했다. 그때 화두참선도 배웠는데, 물질의 세계가 아닌 고귀한 정신세계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된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출가를 해야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장남이었기에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은 '원래 스

평소 정진하며 잘 사는 것이 바로 웰다잉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해져야 공부길에 들어설 수 있어

위에 공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석등의 형태로 조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사자석탑을 의호하듯 바로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견성당(見性堂)은 현산 스님의 거처이다. 조석으로 드나들며 석탑과 연기 대사에 눈 맞추는 세월도 십여 년에 이른다. 이 또한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다.

견성당에 들어서려면 성적문(性寂門)을 지나야 한다. 공부의 길은 성적을 여의지 않아야 하는 법,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해져야 비로소 공부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온 몸으로 전하고 있다.

사미승 때부터 제방의 선원을 다니며 공부한 그 햇수를 헤아려보니 반 백 년의 세월이다. 산전에 꽃이 피고 지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부자 겸으로 다급했기에 좌복 위에서 100만개를 훌쩍 넘겼다. 스님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면서 '마음공부'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 세상 어영부영 살다 보면 눈은 곧 침침해지고 백발이 찾아오고 세월은 금방이라. 내 면목 모르고 살아온 시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지 못한 것이 '죄업'인 것을 안다면 하루가 다급하지."

현산 스님은 출가 전부터 '화두참선'을 알았고 화두참선을 원 없이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아마도 전생에 익힌 습이 있어 그랬던 모양이라"면서 출

님이셨던 분이 우리 집에 잠시 아들로 온 것인데, 정해진 길로 가자"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을 뿐더러 "꼭 도인이 되라"고 축복 해주시더라. <본생담(本生譚)>의 한 구절을 듣는 듯하다.

도원 스님을 은사로 입산하여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고 나서 선방을 떠돌았다. 일생을 선방에서만 보내온 만큼 동산 스님, 전강 스님, 효봉 스님, 경봉 스님, 춘성 스님, 금오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었다.

"법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잠깐 공부했는데, 계정해(戒定慧) 삼학(三學)에 두루 능통하였고 특히 계를 철저히 지키셨습니. 청정하신 분이냐 그런지 열반하실 때도 참 깨끗하게 고요하게 가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량청소하고 선방에서 정진하고 계시더니,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가보아야겠다'고 하시더니 그날 오후에 열반에 들어오셨어. 이것만 보아도 보통 공부한 분이 아니지요."

인연 윤회사에 선방은 없고 조실제만 있을 때 전강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어. 스님은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12시간 되면 눈을 뜨고 계속 정진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행력을 보였습니. 그때 스님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

판검사가 되려고 해도 병이 생길 정도로 공부해야 하는데, 만법의 왕인 마음을 공부하는데도 그만큼 대가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세세생생 끝에 익혀



현산 스님은 ...

1961년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0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사미 때부터 전국의 선방을 다녔고 산철결계까지 합하여 100만개를 성만. 동산 스님, 전강 스님, 효봉 스님, 경봉 스님, 춘성 스님, 금오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 지금은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며, 화엄사 선등선원장을 맡고 있다.

심(惽心)이 일어납니다. 진심이 일게 되면 결국 육체가 병들어 무너지고, 마음 또한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옛 조사님들은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다만 나의 허물을 잘 살필 것이며, 산란한 마음을 화두로 묶어 '이렇고'를 참구하라고 일렀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자니 육조 혜능 스님의 일화 한 토막이 떠올랐다.

혜능 스님의 명성을 듣고 신회 스님이 찾아왔다. 혜능 스님께 예배하고 나서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혜능 스님은 별말 일어나서 신회 스님을 풍등으로 세 번이나 때리고 나서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더냐, 아프지 않더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말씀하였다.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 말씀에 신회 스님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었고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찌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 까닭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보아서 무엇 하라.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면 울릴수록 분별심만 깊어지니 그저 방하착하라. 평생을 선방 수좌로 살아오신 현산 스님은 마음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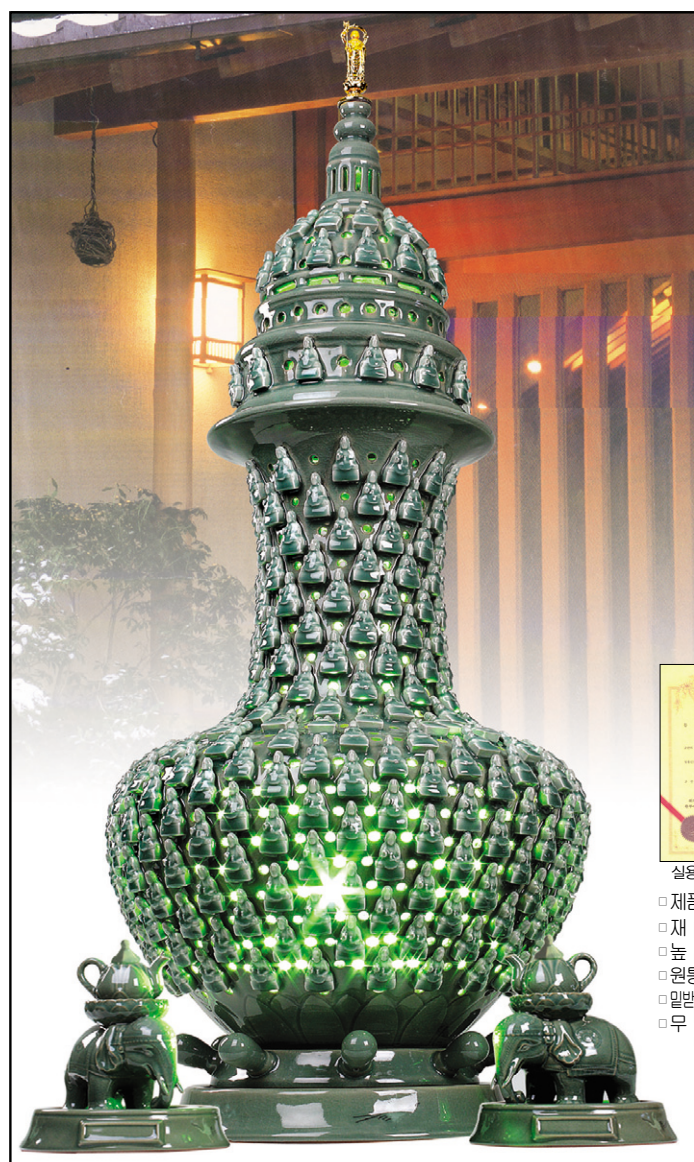
"내 면목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하고 듣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은들, 자식을 아무리 잘 키운들 무슨 이득이 있었어요? 깨달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데,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겠지. '이렇고' 한번 잘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은 습을 바꾸려면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무엇이든 오랜 시간 몰두해야 성취할 수 있잖아요. 참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며 허황된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솟아나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해안을 갖추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쭙었다.

"첫째는 불견세간우(不見世間憂)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내 입장이고 내 맞이지, 다른 사람들의 탓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허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다 보면 진



업장소멸 범륜대 (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범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범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범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빛,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범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범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범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범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심상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범륜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범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원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